

한·흉노와 비단길

진나라가 무너진 뒤 중국을 다시 통일한 한나라는 북쪽의 흉노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평화를 맺었어요. 서쪽으로 간 사신과 여러 지역의 상인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와 국경 밖의 교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 단원의 질문

- Q01 진나라가 망했는데, 한나라는 진의 제도를 왜 이어받았나요?
- Q02 ‘군국제’는 진나라의 ‘군현제’와 무엇이 달랐나요?
- Q03 한 무제는 왜 제후왕의 힘을 줄이려 했나요?
- Q04 한 무제는 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았나요?
- Q05 태학을 세우면 유교가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 Q06 흉노는 왜 한곳에 머물러 농사짓지 않고 이동하며 살았나요?
- Q07 흉노는 어떻게 큰 농경 국가인 한나라와 맞설 수 있었나요?
- Q08 한 고조는 왜 흉노에 비단과 곡식을 보내며 평화를 맺었나요?
- Q09 한 무제 때에는 왜 흉노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나요?
- Q10 조공과 책봉을 하면 상대 나라를 직접 지배한 것인가요?
- Q11 한 무제는 왜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관리해 팔았나요?
- Q12 한 무제 때가 전성기라면 백성도 모두 잘살았나요?
- Q13 장건은 처음부터 비단을 팔러 서역에 갔나요?
- Q14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했다’면 길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 Q15 비단길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 하나였나요?
- Q16 중국 상인이 비단을 들고 로마까지 한 번에 갔나요?
- Q17 비단길에서는 비단만 오갔나요?
- Q18 사마천의 『사기』는 왜 중요한 역사책인가요?
- Q19 채륜이 종이를 처음 발명한 사람인가요?
- Q20 종이가 널리 쓰이면 학문과 문화는 왜 더 쉽게 퍼지나요?

이 단원의 질문

Q01 진나라가 망했는데, 한나라는 진의 제도를 왜 이어받았나요?

답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제도는 이어받고, 백성에게 지우는 지나친 부담은 줄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진이 무너진 뒤 중국에서는 여러 세력이 다투었어요. 그 가운데 **유방**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기원전 202년에 중국을 다시 통일해 황제가 되었어요.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이에요. 유방을 **한 고조**라고도 불러요. ‘고조’는 그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세운 황제를 가리켜 부르는 이름이에요.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역마다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할 관리가 필요해요. 한은 진이 마련한 황제 중심의 관리 조직과 지방 통치 제도를 이어받았어요. 진이 망했다고 해서 진의 모든 제도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한 초기에 중요한 일은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이 다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금과 나라의 공사에 동원되는 부담을 줄이려 했어요. 한이 처음부터 모든 정책을 유교에 따라 바꾼 것은 아니에요.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Q02 ‘군국제’는 진나라의 ‘군현제’와 무엇이 달랐나요?

답 군국제는 중앙의 관리가 다스리는 지역과 제후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함께 둔 제도예요.

군현제는 땅을 군과 현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게 하는 제도예요. 군은 큰 구역, 현은 그 아래의 작은 구역이에요. 여기서 군은 군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고조는 군현제를 이어받으면서도 일부 지역에는 왕을 두었어요. 이처럼 황제 아래에서 일정한 지역을 맡은 왕을 **제후왕**이라고 해요. 한의 건국을 도운 공로자나 황제의 친족이 제후왕이 되었고, 고조는 점차 자기 친족을 중심으로 그 자리를 바꾸었어요. 이들은 지위와 다스리는 지역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어요.

한은 이제 막 긴 전쟁을 끝낸 나라였어요. 여러 유력 세력의 도움을 얻고 넓은 땅을 안정시키기 위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했어요. 이를 **군국제**라고 해요. 이름의 ‘군’은 중앙의 관리가 다스리는 지역, ‘국’은 제후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가리켜요.

군국제 안의 두 지역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지위가 이어지는 방식
군과 그 아래의 현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	중앙이 임명하고 교체
제후왕의 나라	황제 아래의 제후왕	대체로 집안의 자손이 이어받음

제후왕의 나라가 한과 아무 관계없는 독립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제후왕이 자기 땅과 백성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면 황제의 통제에 맞설 수 있었어요.

Q03 한 무제는 왜 제후왕의 힘을 줄이려 했나요?

답 제후왕이 황제의 명령에 맞서는 것을 막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 권한을 황제에게 모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 무제는 고조보다 뒤에 한나라를 다스린 황제예요. ‘무제’도 개인 이름이 아니라 황제가 죽은 뒤 붙인 이름이에요. 고조와 무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제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한은 제후왕의 힘을 줄여 왔고, 무제는 이 정책을 더욱 추진했어요.

무제는 제후왕이 다스리던 땅의 일부를 맏아들 외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했어요. 이 정책을 **추은령**이라고 해요. ‘은혜를 넓힌다’는 이름처럼 왕의 여러 아들이 혜택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정치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하나의 큰 지역을 한 집안의 대표가 그대로 이어받을 때보다, 여러 작은 지역으로 나누면 각각의 세력은 작아져요. 무제는 이런 방법으로 제후왕의 힘을 약화하고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어요. 중요한 권한이 황제와 중앙 정부에 모이는 것을 **중앙 집권**이라고 해요. 제후왕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Q04 한 무제는 왜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았나요?

답 도덕과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황제 중심의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와 도덕을 강조한 사상이에요. **공자**는 한나라보다 앞서 여러 나라가 경쟁하던 춘추 시대에 활동한 사상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 신하가 임금을 성실하게 섬기는 **충** 등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정하는 기본 생각을 **통치 이념**이라고 해요.

무제는 유교 학자 **동중서**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유교를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백성과 관리가 자기 역할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황제 중심의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었어요. 유교는 개인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유교가 백성에게 복종만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군주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런 이상을 내세웠다고 해서 실제 정치가 늘 백성에게 너그러웠던 것은 아니에요. 한은 유교를 중시하면서도 법과 처벌, 관리 조직을 이용해 나라를 다스렸어요.

Q05 태학을 세우면 유교가 정치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 유교를 배운 관리 후보를 길러, 그 가르침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쓰이게 할 수 있었어요.

태학은 한 무제 때 마련된 국가의 교육 기관이에요. 이곳에서는 유교의 중요한 책과 가르침을 공부했어요. 유교를 학문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유학**이라고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 **관리**예요. 넓은 나라의 관리들이 서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일하면 같은 문제도 지역마다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유학을 배운 관리가 늘어나면, 황제가 내세운 통치 이념을 지방의 행정에도 연결하기 쉬워요.

한에서는 지방의 관리 등이 행실과 능력이 좋다고 여긴 사람을 추천해 관리 후보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했어요. 이를 **추천제**라고 해요. 태학에서 공부한 실력을 평가해 관리로 나아가는 길도 있었어요. 유학이 관리 선발에서 중요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시험을 치러 관리가 되는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한나라가 무너지고 한참 뒤인 수나라 때 시작되는 **과거제**, 곧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와는 구별돼요.

Q06 흉노는 왜 한곳에 머물러 농사짓지 않고 이동하며 살았나요?

답 가축을 기르는 생활에서 계절에 따라 필요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흉노는 한나라 북쪽, 오늘날 몽골 일대와 그 주변의 초원을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이에요. **초원**은 나무보다 풀이 넓게 자라는 땅이에요. 이 지역에는 비가 적고 추운 곳이 많아서 넓은 지역에 걸쳐 농사만으로 살기 어려웠어요.

흉노 사회에서는 말·양·소 같은 가축을 기르는 생활이 중요했어요. 가축을 데리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유목**이라고 해요. 한곳의 풀만 계속 먹이면 가축에게 줄 먹이가 부족해질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머물기 좋은 곳도 달라져요.

유목은 아무 계획 없이 떠도는 생활이 아니에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계절에 어느 곳의 풀이 좋은지 알아야 했어요. 농경과는 다른 환경에 맞춘 생활 방식이었어요. 흉노 안에도 여러 집단과 생업이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흉노 시대 초원의 유목 생활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사람들이 양을 돌보고 말을 이끌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뒤쪽 천막은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거처예요. 가축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에서, 말과 이런 거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Q07 흉노는 어떻게 큰 농경 국가인 한나라와 맞설 수 있었나요?

답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군사력과 여러 집단을 하나로 묶는 조직력을 함께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흉노의 지배자 **목특**은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여러 유목 집단을 통합하며 세력을 크게 넓혔어요. 흉노의 최고 지배자를 부르는 칭호가 **선우**예요. 따라서 ‘목특 선우’에서 목특은 사람의 이름이고, 선우는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흉노는 말을 타고 이동하고 활을 쏘는 데 능했어요.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기마병**이라고 해요. 기마병은 넓은 초원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공격할 곳을 바꾸거나 물러나는 데 유리했어요. 그러나 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큰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집단의 병사와 물자를 모아 움직이는 조직도 필요했어요.

흉노는 이런 힘으로 넓은 초원과 교역로에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한나라가 농사를 짓고 큰 도시를 갖추었다고 해서 흉노를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흉노를 그저 흩어진 유목민이나 뒤쳐진 사회로 보면, 한이 왜 그들과 협상하고 싸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Q08 한 고조는 왜 흉노에 비단과 곡식을 보내며 평화를 맺었나요?

답 흉노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 안의 생활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한 고조는 흉노와 싸우다가 군대가 포위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은 중국을 다시 통일했지만,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과 나라 살림을 회복해야 했어요. 북쪽에서 계속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한은 흉노와 **화친**, 곧 싸움을 줄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정책을 폈어요. 한은 공주를 흉노의 선주에게 시집보내고 비단과 곡식 같은 물자를 보내며 화친을 맺었어요. 기록에 나오는 ‘공주’는 반드시 황제가 직접 낳은 딸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혼인을 위해 공주의 지위를 준 여성이 보내지기도 했어요.

한은 전쟁 부담을 줄이고, 흉노는 필요한 물자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약속을 맺은 뒤 모든 충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한 고조의 선택은 당시 두 세력의 힘과 나라 안의 사정을 고려한 외교였어요.

Q09 한 무제 때에는 왜 흉노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나요?

답 커진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흉노의 위협을 줄이고, 국경 밖으로 한의 영향력을 넓히려 했기 때문이에요.

한 초기의 회복기를 거치며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졌어요. 무제는 기마병을 활용해 흉노를 적극적으로 공격했어요. 한 고조가 화친으로 안정을 얻으려 한 것과 비교하면, 무제는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 힘을 쏟았어요.

한은 흉노에 큰 타격을 주고 서쪽으로 나아갈 통로를 확보해 갔어요. 또 고조선을 공격해 멸망시키고, 오늘날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걸쳐 있던 남월을 정복하는 등 다른 방향으로도 세력을 넓혔어요. **고조선**과 **남월**은 당시 한의 바깥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오늘날의 중국이나 베트남의 국경을 그대로 떠올리면 당시의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무제의 공격으로 흉노가 곧바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도 두 세력 사이에는 전쟁과 협상이 이어졌고, 훗날에는 흉노의 일부 세력이 한과 협력하기도 했어요. 한과 흉노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어요.

Q10 조공과 책봉을 하면 상대 나라를 직접 지배한 것인가요?

답 아니에요. 황제를 높이는 외교 형식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 나라를 직접 다스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은 주변 나라·세력과 관계를 맺을 때 조공·책봉이라는 외교 형식도 활용했어요. **조공**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지배자가 사신을 보내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는 외교 행위예요. **사신**은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가는 사람이에요. **책봉**은 황제가 상대 지배자의 왕 같은 지위를 인정해 주는 일이에요. 이 형식에서는 황제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외교에서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것과, 자기 나라의 세금이나 관리를 황제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기 나라의 정치와 군대를 운영하는 지배자들이 있었어요. 조공 사절이 받은 답례품이나 교역의 기회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조공·책봉이 언제나 이름뿐인 관계였다는 뜻도 아니에요. 실제 힘의 차이와 간섭의 정도는 시대와 상대에 따라 달랐어요. 고조 때의 화친은 조공·책봉과 다른 방식의 관계였고, 오히려 한이 흉노에 물자를 보냈어요. 한이 황제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상대보다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외교의 형식과 실제 힘의 관계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

Q11 한 무제는 왜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관리해 팔았나요?

답 많은 사람이 꼭 써야 하는 물건에서 수입을 얻어 전쟁과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는 병사뿐 아니라 식량, 말, 무기와 이를 나르는 사람도 필요해요. 먼 지역에 군대를 오래 보내면 비용이 더욱 커져요. 무제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전매**를 실시했어요.

전매는 특정 물건을 만드는 일이나 파는 일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해 수입을 얻는 제도예요. 소금은 음식을 먹고 보관하는 데 필요했고,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했어요. 꾸준한 수요가 있는 물건이므로 국가가 수입을 확보하기 좋았어요.

전매는 백성이 소금과 철을 쓰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 아니예요. 또 나라가 모든 물건의 거래를 독점했다는 뜻도 아니예요. 다만 소금과 철을 만들고 팔던 사람들의 활동은 제약을 받았고, 이런 경제 통제가 백성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Q12 한 무제 때가 전성기라면 백성도 모두 잘살았나요?

답 아니예요. 나라의 영토와 힘이 커져도, 전쟁에 필요한 세금과 군사·노동 동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있었어요.

전성기는 어떤 나라나 문화의 힘과 활동이 크게 발전한 시기를 말해요. 한 무제 때에는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영토와 대외 영향력이 넓어졌어요. 이런 성과 때문에 한의 전성기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군대에 들어가거나 군량(군대가 먹을 식량)을 나르는 사람이 늘어나면 농사에 쓸 일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이나 물자 부담이 커지면 한 집안이 생활에 쓸 몫도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과 백성의 살림이 좋아졌다는 말은 같지 않아요.

반대로 당시의 백성이 모두 똑같이 가난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교역이 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성기’는 국가의 성과를 설명하는 말이지만, 그 성과를 만드는 데 든 비용과 사람마다 달랐던 처지도 함께 보아야 해요.

Q13 장건은 처음부터 비단을 팔러 서역에 갔나요?

답 아니예요. 처음에는 흉노에 함께 맞설 동맹을 구하려고 한 무제가 보낸 사신이었어요.

장건은 한 무제 때 서쪽 지역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당시 한에서 **서역**이라고 부른 곳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가리켜요. 이 단원에서는 특히 중국 서북쪽의 사막 주변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말해요. **중앙아시아**는 아시아 대륙 가운데에 있는 초원·사막·산지와 여러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무제는 흉노와 싸운 적이 있는 **대월지**와 손을 잡으려 했어요. 대월지는 흉노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옮겨 간 세력이에요. 두 세력이 함께 흉노를 공격하면 한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맺는 관계를 **동맹**이라고 해요.

장건은 길을 가다가 흉노에 붙잡히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고, 대월지와의 군사 동맹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역 여러 지역의 나라, 물산과 길에 관한 정보를 한에 전했어요. 처음의 군사적 목적은 이루지 못했어도, 이후 한이 서역과 교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어요.

Q14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했다’면 길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답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오가던 길을 바탕으로 한과 서역의 연결이 넓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교과서에서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그의 파견과 보고가 한의 서역 진출에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개척**은 새로운 활동의 길을 열어 간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장건이 땅을 파고 도로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건 이전에도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 도시의 상인들은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이동했어요. 이들은 물이 있는 곳, 산을 넘을 수 있는 곳, 다음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장건의 활동은 이런 기존의 이동과 교류에 한의 관심과 활동이 더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비단길의 발달에는 사신과 상인뿐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길 주변의 주민도 필요했어요. 장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여러 지역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함께 성립해요.

Q15 비단길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도로 하나였나요?

답 아니에요. 여러 길과 오아시스 도시가 이어진 교역망이었어요.

비단길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중해 방면을 잇던 여러 교역로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실크 로드**라고 해요.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육지의 길이에요. 비단길이라는 이름은 당시 사람들이 도로에 붙인 공식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붙인 이름이에요.

사막에서는 사람도 짐을 나르는 동물도 물과 먹이를 구해야 해요. **오아시스**는 건조한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어 풀이나 나무가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오아시스에 생긴 도시에서는 쉬거나 물자를 보충하고, 물건을 거래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점을 연결하며 이동했어요. 산과 사막을 돌아가는 길도 있었고, 전쟁이나 지역 사정에 따라 이용하는 길이 바뀌기도 했어요. 여러 곳이 서로 연결되어 물건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교역망**이라고 해요. 지도에 그려진 한 줄만으로는 실제의 다양한 길을 모두 나타내기 어려워요.



고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의 교역을 나타낸 상상도예요. 왼쪽 낙타는 짐을 싣고 있고, 가운데 사람들은 천을 펼쳐 살펴보고 있어요. 오른쪽의 물길과 밭은 건조한 땅에서도 물을 이용해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 줘요. 이런 곳은 여행자가 쉬고 물자를 보충하며 거래하는 거점이 되었어요.

Q16 중국 상인이 비단을 들고 로마까지 한 번에 갔나요?

답 대체로 여러 지역의 상인이 일정한 구간을 오가며 물건을 이어서 전달했어요.

비단길은 중국과 로마를 이은 길로 설명되기도 해요. **로마**는 지중해 주변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나라예요. 중국의 비단은 서쪽 여러 지역을 거쳐 로마 세계에도 전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 상인 한 사람이 전 구간을 직접 이동했다는 뜻은 아니예요.

예를 들어 한 상인이 가까운 오아시스 도시까지 비단을 가져와 팔면, 그 도시의 다른 상인이 사서 다음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런 거래가 이어지면 물건은 처음 출발한 곳에서 아주 멀리까지 가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서 물건을 사서 다른 지역에 파는 거래를 **중계 무역**이라고 해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상인, 유목민, 도시 주민은 단순히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예요. 서로 다른 지역의 물건과 소식을 연결한 주역이었어요. 먼 거리를 여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상인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한 번에 갔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역할을 놓치게 돼요.

Q17 비단길에서는 비단만 오갔나요?

답 아니에요. 다양한 물건뿐 아니라 종교와 기술, 예술과 지식도 오갔어요.

비단은 중국에서 서쪽으로 전해진 대표적인 상품이어서 길의 이름에도 남았어요. 그러나 여러 지역의 말, 유리 제품, 보석과 직물 등도 거래되었어요. 물건이 중국에서 서쪽으로만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중국도 서쪽 지역의 좋은 말과 여러 물산을 받아들였어요.

물건이 이동하려면 사람이 오가야 해요. 사람들은 거래하며 서로의 말과 생활 방식을 접했고,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다른 곳에 전하기도 했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진 것도 이런 교류와 연결돼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이 모든 교류가 장건이 서역에 간 때에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 세기에 걸쳐 길을 이용하는 사람과 오가는 물건·문화가 달라졌어요. ‘한 무제의 서역 진출’은 중요한 계기이고, ‘비단길을 통한 문화 교류’는 훨씬 오랜 시간 이어진 과정이에요.

Q18 사마천의 『사기』는 왜 중요한 역사책인가요?

답 오래전부터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여러 인물과 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뒤의 역사책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마천은 한 무제 때 활동한 역사가예요. 그가 쓴 『사기』는 중국의 전설적인 옛 시대부터 자신이 살던 시대까지 폭넓은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옛 기록과 전해 오는 이야기를 모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에는 전설도 섞여 있어요.

『사기』에는 황제의 활동뿐 아니라 여러 인물의 삶, 나라의 제도와 경제에 관한 내용도 담겼어요. 황제와 여러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연표와 제도 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뒤에 만들어진 중국의 역사책들과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사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책의 모든 문장이 오늘날 확인된 사실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시와 이전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자, 뒤의 역사책을 쓰는 데 모범이 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Q19 채륜이 종이를 처음 발명한 사람인가요?

답 아니에요. 채륜 이전에도 종이가 있었고, 채륜은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개량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채륜은 후한 때의 관리예요. 한나라는 중간에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는데, 앞 시기를 전한, 뒤 시기를 후한이라고 불러요. 고조와 무제, 사마천은 전한 때 인물이고, 채륜은 그보다 뒤인 후한 때 인물이에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제지술, 이미 있던 것을 더 나아지게 고치는 일을 개량이라고 해요. 채륜은 나무껍질과 헨 천, 낡은 그물 같은 재료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전해져요. 기원후 105년에 그 성과를 황제에게 알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채륜보다 앞선 시기의 종이도 발견되었어요. 따라서 ‘기원후 105년에 종이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채륜은 이전에 있던 기술을 발전시키고 널리 활용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에요.

Q20 종이가 널리 쓰이면 학문과 문화는 왜 더 쉽게 퍼지나요?

답 글을 적어 보관하고 옮기는 부담이 줄어, 지식을 기록하고 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종이가 널리 쓰이기 전에는 대나무나 나무를 얇게 깎은 조각을 묶어 글을 적었어요. 이를 죽간·목간이라고 해요. 비단에 쓰기도 했어요. 대나무와 나무 조각은 많이 모으면 무겁고, 비단은 비싼 재료였어요.

종이는 가벼워서 많은 내용을 적은 뒤에도 운반하기 쉬웠어요. 제지술이 발전하고 종이가 보급되면서 기록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었어요. 관리의 문서나 학문의 내용을 옮겨 적고 보관하는 데 유리해진 거예요.

종이가 생겼다고 모두가 곧바로 글을 읽게 된 것은 아니고, 당시부터 인쇄기로 책을 찍어 낸 것도 아니에요. 종이의 보급과 제지술의 전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이후 종이 만드는 기술도 교류로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해져, 지식을 기록하고 나누는 데 큰 영향을 주었어요.

확인 문제

확인 01

한이 진의 제도를 이어받으면서 바꾸려 한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황제와 관리 조직을 없애고 제후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 ② 진의 군현제를 없애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해임했어요.
- ③ 필요한 제도를 잇고 백성의 부담을 줄이려 했어요.
- ④ 건국 때부터 유교만으로 모든 정책을 정했어요.

확인 02

한 초기의 군국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중앙 관리의 지역과 제후왕의 지역을 함께 두었어요.
- ② 모든 지역을 제후왕이 다스리며 중앙의 관리는 없었어요.
- ③ 모든 지역을 중앙의 관리가 맡고 제후왕은 두지 않았어요.
- ④ 제후왕의 나라는 한나라 황제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확인 03

추은령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까닭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제후왕의 큰 지역을 맏아들에게 모아 주어 세력을 키웠어요.
- ② 제후왕에게 소금과 철을 맡겨 경제적인 권한을 늘렸어요.
- ③ 제후왕이 지방 관리를 직접 뽑아 중앙의 명령을 줄였어요.
- ④ 제후왕의 큰 지역을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 세력을 줄였어요.

확인 04

한 무제 때 유교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효와 충을 강조해 황제 대신 제후왕에게 권한을 모았어요.
- ② 도덕과 각자의 책임을 통해 황제 중심 질서를 도왔어요.
- ③ 백성의 도덕을 강조해 군주가 지는 책임은 모두 없었어요.
- ④ 군주의 덕으로 법과 관리 없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확인 05

한나라의 태학과 관리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태학은 상인의 물건을 검사하고 세금을 거두는 곳이었어요.
- ② 유학 교육과 인재 추천을 관리 양성·선발에 활용했어요.
- ③ 모든 백성이 같은 시험을 치르는 과거제가 완성됐어요.
- ④ 관리의 자리는 학문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세습됐어요.

확인 06

유목민이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까닭과 관련된 자연 자원을 두 가지 쓰세요.

답 _____

확인 07

흥노가 한나라와 맞설 수 있었던 힘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유목 생활을 모두 버리고 한나라의 농사법만 따랐어요.
- ② 여러 집단이 흩어져 각자 자기 방식으로만 싸웠어요.
- ③ 도시가 없으면 군사 조직도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 ④ 빠르게 움직이는 기마병과 강한 조직력을 갖추었어요.

확인 08

한 고조가 흉노와 화친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전쟁의 어려움을 줄이고 나라 안을 회복하려 했어요.
 - ② 흉노를 완전히 정복한 뒤 군현제를 실시하려 했어요.
 - ③ 서역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 흉노를 포위하려 했어요.
 - ④ 흉노를 제후왕으로 삼아 군국제를 넓히려 했어요.
-

확인 09

한 고조와 한 무제 때 흉노 정책을 비교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고조는 흉노를 멸망시켰고 무제는 남은 땅을 돌려주었어요.
 - ② 고조는 조공을 받기만 했고 무제는 모든 교역을 금지했어요.
 - ③ 고조는 화친을 맺었고 무제는 흉노를 적극 공격했어요.
 - ④ 고조는 전쟁을 끝냈고 무제 때에는 흉노와 충돌이 없었어요.
-

확인 10

조공·책봉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예물을 바쳤다면 그 나라의 모든 관리는 황제가 임명했어요.
 - ② 왕으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모두 금지됐어요.
 - ③ 형식상의 관계라 실제 정치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어요.
 - ④ 황제를 높이는 형식과 실제 지배의 정도는 구별해야 해요.
-

확인 11

한 무제가 소금과 철을 전매한 주된 목적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소금과 철의 사용을 금지해 백성의 소비를 없애려 했어요.
- ② 소금과 철을 제후에게 주어 지방의 세력을 키우려 했어요.
- ③ 소금과 철에서 수입을 얻어 전쟁과 나라 운영에 쓰려 했어요.
- ④ 소금과 철의 수입을 포기해 국가의 역할을 줄이려 했어요.

확인 12

‘한 무제 때는 전성기였다’는 설명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국가의 영토가 커졌으므로 모든 집안의 살림도 좋아졌어요.
- ② 국가는 강해졌지만 전쟁 부담을 지는 백성도 있었어요.
- ③ 국가의 수입이 늘었으므로 전쟁에 필요한 노동은 사라졌어요.
- ④ 국가의 교역이 늘었으므로 당시 모든 백성은 가난해졌어요.

확인 13

빈칸에 알맞은 세력의 이름을 각각 쓰세요.

한 무제는 ㉠에 함께 맞설 동맹을 구하려고 장건을 ㉡에 보냈어요.

㉠ _____ ㉡ _____

확인 14

장건의 활동과 성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기존 교역로를 모두 폐쇄하고 한나라만 쓸 길을 만들었어요.
- ② 대월지와 동맹을 맺은 뒤 흉노를 함께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 ③ 동맹은 못 맺었지만 서역 정보를 전해 교류를 도왔어요.
- ④ 중국부터 로마까지 도로를 닦고 전 구간을 혼자 관리했어요.

확인 15

오아시스 도시가 비단길에서 중요했던 까닭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물자를 보충하고 쉬며 거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 ② 물이 부족해 사람이 머무르지 못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 ③ 모든 도시를 한나라 황제가 직접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 ④ 모든 상인이 중국부터 로마까지 함께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

확인 16

비단길의 중계 무역을 보여 주는 사례를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 상인이 다른 지역에서 산 물건을 다음 지역에 팔아요.
 - ② 한 상인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모든 짐을 혼자 운반해요.
 - ③ 한 상인이 자기 마을에서 만든 물건을 가족끼리 사용해요.
 - ④ 한 상인이 다른 도시와의 거래를 끊고 창고에 짐을 쌓아요.
-

확인 17

비단길을 통한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중국의 비단만 서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물건은 오가지 않았어요.
 - ② 여러 물건과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방향으로 오갔어요.
 - ③ 장건이 돌아온 해에 모든 지역이 같은 종교를 믿게 되었어요.
 - ④ 상인들은 물건만 거래하여 다른 지역의 문화와는 접촉하지 않았어요.
-

확인 18

사마천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한 무제 이후의 후한 황제들만 차례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 ② 나라의 제도를 빼고 평범한 상인들의 일기만 모은 책이에요.
- ③ 전설을 전혀 담지 않아 모든 내용이 오늘날 사실로 확인됐어요.
- ④ 여러 인물과 제도 등을 담아 뒤의 역사 서술에 영향을 주었어요.

확인 19

“채륜이 기원후 105년에 종이를 세상에서 처음 발명했다.”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채륜 이전’과 ‘개량’의 뜻이 드러나게 쓰세요.

답

확인 20

종이의 보급이 지식 전파에 도움이 된 까닭을 ‘기록 재료의 무게’와 ‘운반’의 관계가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정답·해설

확인 01 정답 ③

한은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제도를 이어받으면서,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의 세금과 노동 부담을 줄이려 했어요.

- ① 한은 황제와 관리 조직을 없애지 않았어요.
- ② 군현제를 이어받았고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 관리도 있었어요.
- ④ 한이 세워진 직후부터 유교만으로 모든 정책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유교가 중요한 통치 이념이 된 것은 뒤의 무제 때와 연결돼요.

다시 읽기: Q01~Q02

확인 02 정답 ①

군국제는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는 군·현과, 제후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함께 둔 제도예요.

- ② 중앙의 관리가 다스리는 지역도 있었어요.
- ③ 일부 지역에 제후왕을 두었으므로 한 초기의 군국제와 달라요.
- ④ 제후왕은 한의 황제 아래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과 무관한 독립국의 왕은 아니었어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3 정답 ④

제후왕의 큰 지역을 여러 아들에게 나누면 각각의 세력이 작아져 중앙이 통제하기 쉬워져요.

- ① 큰 지역을 한 사람에게 모아 주면 그 세력을 줄이려는 취지와 반대예요.
- ② 제후왕의 경제적 권한을 늘리는 것은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추은령의 방향과 달라요. 소금과 철의 전매는 별도의 경제 정책이에요.
- ③ 제후왕이 중앙의 명령을 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왕의 힘을 줄여 중앙이 통제하기 쉽게 하려 했어요.

다시 읽기: Q03

확인 04 정답 ②

유교는 도덕과 각자의 책임을 강조했고, 한 무제 때 황제 중심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었어요.

- ① 유교를 채택한 무제는 제후왕에게 권한을 모으려 하지 않았어요.
- ③ 유교는 군주에게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 ④ 한은 유교를 중시하면서도 법과 처벌, 관리 조직을 계속 이용했어요.

다시 읽기: Q04**확인 05** 정답 ②

태학에서는 유학을 가르쳐 관리 후보를 길렀고, 행실과 능력을 보고 인재를 추천하는 방식도 관리 선발에 활용되었어요.

- ① 태학은 국가의 교육 기관이에요. 상품 검사나 세금 징수를 맡는 곳이 아니에요.
- ③ 한의 관리 선발을 뒤에 수나라에서 시작되는 과거제와 같게 보면 안 돼요.
- ④ 추천이나 학업 평가를 통해 관리가 되는 길도 있었어요. 모든 관리의 자리를 세습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5**확인 06** 정답 풀, 물

가축은 먹을 풀과 마실 물이 필요해요. 유목민은 계절에 따라 이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순서는 바꾸어 써도 돼요. ‘목초와 물’, ‘가축의 먹이와 물’처럼 두 자원의 뜻이 드러나면 맞아요. ‘초원, 물’이라고 써도 초원에서 가축이 먹을 풀을 얻는다는 뜻으로 보아 맞아요. ‘말과 양’은 이동하면서 기르는 가축의 예이지, 가축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7 정답 ④

흉노는 기마병의 빠른 이동 능력과 여러 집단을 통합하는 조직력을 함께 갖추었어요. 묵특 선우는 여러 집단을 묶어 흉노의 세력을 크게 넓혔어요.

- ① 흉노의 힘은 유목 생활을 모두 포기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 ② 집단이 따로 움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병사와 물자를 모아 움직이는 조직이 있었어요.
- ③ 큰 군사력을 움직이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도시의 유무만으로 조직력을 판단할 수 없어요.

다시 읽기: Q06~Q07**확인 08** 정답 ①

한 고조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화친으로 전쟁 부담을 줄이고 한 내부의 생활을 회복하려 했어요.

- ② 고조는 흉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흉노 전체에 군현제를 실시한 것도 아니에요.
- ③ 서역의 세력과 동맹을 맺어 흉노에 맞서려 한 것은 뒤에 무제가 장건을 파견한 목적과 관련돼요. 고조가 흉노와 화친한 까닭과는 달라요.
- ④ 화친은 흉노를 한의 제후왕으로 삼아 군국제에 넣는 정책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8**확인 09** 정답 ③

고조는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화친을 맺었고, 무제는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흉노를 적극적으로 공격했어요.

- ① 고조가 흉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며, 무제가 그 땅을 돌려준다는 설명도 맞지 않아요.
- ② 고조 때에는 한이 물자를 보내며 화친했고, 무제가 모든 교역을 금지한 것도 아니에요.
- ④ 화친 뒤에도 충돌이 있었고, 무제 때에는 적극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시 읽기: Q08~Q09

확인 10 정답 ④

조공·책봉은 황제를 더 높이는 외교 형식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배하고 간섭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 ① 예물을 바쳤다고 그 나라의 모든 관리가 황제에게 임명된 것은 아니에요.
- ② 책봉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와의 모든 교역이 자동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 ③ 이름뿐인 관계라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힘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간섭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0**확인 11** 정답 ③

무제는 소금과 철을 국가가 관리해 얻은 수입으로 전쟁과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 했어요.

- ① 전매는 소금과 철을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 ② 제후의 세력을 키우려고 소금과 철을 나누어 준 정책이 아니에요.
- ④ 국가는 수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에 관여해 필요한 수입을 얻으려 했어요.

다시 읽기: Q11**확인 12** 정답 ②

영토와 국가의 힘이 커지는 동안에도 세금, 군사와 노동 동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 ① 영토의 확대가 모든 집안의 생활 향상을 뜻하지는 않아요.
- ③ 국가 수입이 늘어도 병사와 군량을 나르는 사람 등의 노동은 여전히 필요했어요.
- ④ 교역의 확대가 모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교역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1~Q12

확인 13 정답 ㉠ 흉노, ㉡ 대월지

무제는 흉노에 함께 맞서기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려 했어요. 대월지는 흉노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세력이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에 ‘월지’라고 써도 돼요. ㉠과 ㉡을 바꾸면 맞서는 대상과 동맹을 구한 대상이 뒤바뀌므로 틀려요. 장건이 비단을 팔기 위해 처음 파견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3**확인 14** 정답 ③

장건은 처음 목표였던 대월지와 동맹을 이루지 못했지만, 서역에 관한 정보를 전해 한의 서역 진출과 교류 확대에 기여했어요.

- ① 기존 길을 모두 폐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교류로를 바탕으로 연결이 넓어졌어요.
- ② 대월지와 군사 동맹은 성사되지 않았고, 흉노를 함께 완전히 멸망시킨 것도 아니에요.
- ④ 비단길은 한 사람이 전 구간을 만들고 관리한 도로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3~Q14**확인 15** 정답 ①

건조한 지역에서 오아시스는 물과 먹이를 얻고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도시에서는 상품을 사고팔 수도 있었어요.

- ② 오아시스는 주변의 건조한 곳과 달리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 ③ 비단길의 모든 오아시스 도시를 한 황제가 직접 다스린 것은 아니에요. 도시의 역할을 설명하는 까닭도 아니에요.
- ④ 오아시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서 로마까지 함께 간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5~Q16

확인 16 **정답 ①**

다른 지역에서 온 물건을 사서 다음 지역에 파는 거래가 이어지면 물건은 멀리 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중계 무역의 모습이에요.

- ② 한 사람이 모든 구간을 운반하는 사례는 여러 상인이 중간에서 물건을 이어 파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아요.
- ③ 가족끼리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사이의 중계 무역이 아니에요.
- ④ 다른 지역에 이어 팔지 않고 쌓아 두기만 하는 것은 중계 무역을 설명하지 못해요.

다시 읽기: Q16**확인 17** **정답 ②**

비단길에서는 다양한 물건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했고, 사람들과 함께 종교·기술·예술·지식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전해졌어요.

- ① 비단뿐 아니라 말과 유리 제품 등도 거래되었고, 중국도 서쪽의 물산을 받아들였어요.
- ③ 문화와 종교의 교류는 여러 세기에 걸친 과정이에요. 장군이 돌아온 해에 모든 지역의 종교가 같아진 것은 아니에요.
- ④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거래하면서 언어와 생활 방식 등에도 접촉했어요.

다시 읽기: Q17**확인 18** **정답 ④**

『사기』는 전설적인 옛 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여러 인물과 제도 등을 통해 정리했고, 기전체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어요.

- ① 사마천은 전한 때 인물이에요. 『사기』는 그보다 뒤의 후한 황제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 ② 황제와 여러 인물의 활동, 제도와 경제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어요.
- ③ 아주 오래된 시대를 다룬 부분에는 전설도 섞여 있어요. 모든 내용이 오늘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8~Q19

확인 19**예시 답**

채륜 이전에도 종이가 있었고, 채륜은 종이 만드는 기술을 개량했어요.

채륜의 역할은 기존 제지술을 더 나아지게 한 것이에요. 기원후 105년은 그 성과를 황제에게 알렸다고 기록된 해이지, 종이가 세상에 처음 생긴 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채륜보다 앞서 종이가 존재했다’와 ‘채륜이 제지술을 개선했다’는 두 내용이 모두 있으면 맞아요. ‘개량’ 대신 ‘더 좋게 고쳤다’라고 써도 돼요. ‘채륜이 최초로 발명했다’는 뜻이 남아 있으면 바로잡은 답이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9**확인 20****예시 답**

종이는 죽간·목간보다 가벼워서 글을 적은 자료를 다른 곳으로 운반하기 쉬웠어요.

글을 적은 자료를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 더 많은 내용을 보관하고 옮기기 쉬워져요. 제지술의 발전과 종이의 보급은 지식 전파를 돕는 조건이 되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종이가 가볍다’는 특징과 ‘기록이나 지식을 옮기기 쉽다’는 효과가 연결되면 맞아요. 이 문제에서는 무게와 운반의 관계를 물었으므로 ‘종이가 싸서 좋았다’만 쓰면 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종이 덕분에 한나라에서 인쇄기로 책을 찍었다’는 설명도 맞지 않아요.

다시 읽기: Q20